

江原道 自然休養林 프로그램의 方向 摸索*

李龍揆¹⁾ · 崔晶棋²⁾

New Perspective of Forest Recreation Program in Gangwon-do*

Yong-Gyu Lee¹⁾ and Jung-Kee Choi²⁾

요 약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자연휴양림의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자연휴양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2003년 현재 강원도는 19개소의 자연휴양림(국유림 11개소, 공유림 4개소, 사유림 4개소)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숲해설, 산악자전거, 산악 마라톤, 산악스키, 숲속 음악회, 숲교실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자연휴양림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축으로 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가옥체험 프로그램」, 「오지체험 프로그램」, 「산촌 특산물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으며, 복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숲속의 지구촌 교류」 프로그램 조성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휴양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강원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new perspective of forest recreation program in Gangwon-do. Gangwon-do has now 19 forest recreation sites (national forest : 11, public forest : 4, private forest : 4) where forest interpretation, mountain bike, mountain marathon, mountain ski, forest music concert, various forest class are held. In order to develop the new programs for forest recreation program in Gangwon-do, this study considered culture program, welfare program and education program. For culture program, the experience program in traditional house, the experience in the back region and the experience in special product of mountain village were suggested. For welfare programs,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old and the handicapped were shown. For education program, forest global village program and personality program were devise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5 day-work per week, the population for recreation are expected to strongly increase, so Gangwon-do representing the image of tour province should improve continuous concern and various developing programs for forest recreation.

Key words : forest recreation program, culture program, welfare program, education program, Gangwon-do

*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03년도 「대학생 학술논문 현상공모」에서 입상한 논문의 일부임.

1)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Division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2)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경영·조경학부, Division of Forest Management·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도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여가 시간이 증대되었으며,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의식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여가생활이라는 인식이 고취되어 보다 질적인 삶을 모색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 속의 삶을 동경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가생활을 자연에서 즐기기 시작하면서 산림의 활용도 높아지게 되어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산림청이 조사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70%가 여가가 생길 경우 숲·계곡에서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산림 휴양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통계자료실, 2002), 국토 연구원이 작성한 「21세기 국토 비전과 전략」에 의하면 관광 휴양지 선호를 국토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 76%가 산림 휴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업연구원, 2003). 이와같이 급증하는 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산림휴양·문화공간 확대 및 산촌진흥' 분야에 예

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산림휴양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대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산림청 기획예산 담당관실, 2003).

강원도는 산림 면적이 83%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도로서 2003년 현재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운영하고 있지만, 타도에 비해 험준한 산악지형의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조성되어진 자연휴양림은 시설 면이나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의 사회적 기대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자연휴양림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현황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은 2003년 현재 총 100개소이며, 자연휴양림은 1988년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는 현재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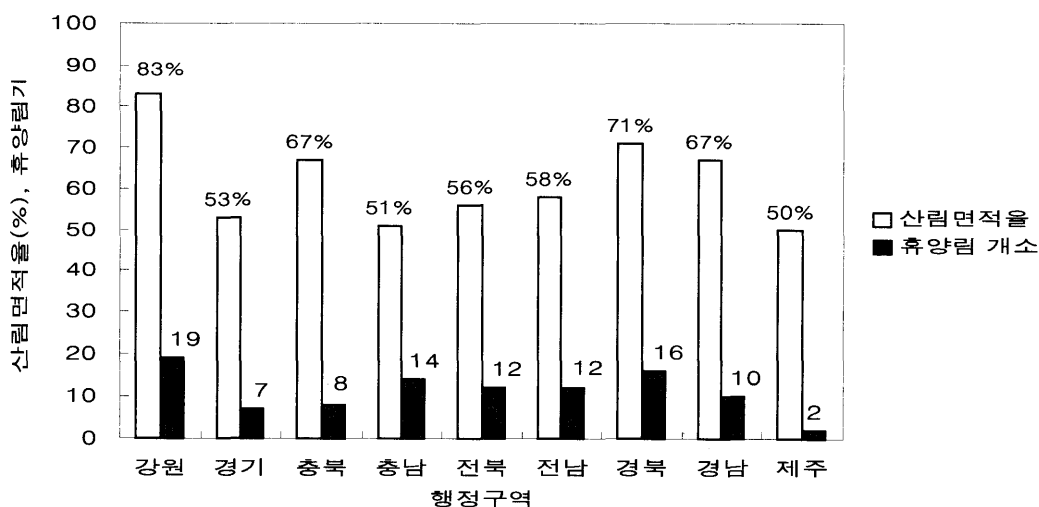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와 타지역 자연휴양림의 현황 비교 (임업통계연보, 2003)

행정구역별로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19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 경북·충남·전북·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별로 자연휴양림 개소를 비교해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강원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1). 이는 강원도의 산림이 대부분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한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원도의 산림을 자연 친화적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강원도는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은 국유림 11개소, 공유림 4개소, 사유림 4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자연휴양림 운영은 횡성군 4개소,

홍천군 3개소, 인제군 2개소, 강릉시 2개소, 철원군 2개소, 원주시 1개소, 춘천시 1개소, 태백시 1개소, 삼척시 1개소, 양양군 1개소, 정선군 1개소로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산림 면적별로는 미천골, 가리왕산, 가곡, 방태산 휴양림 순으로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강원도 자연휴양림 프로그램의 현황

강원도의 자연휴양림 프로그램의 실태를 휴양림별 홈페이지,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자료와 전화문의 등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된 자연휴양림 프로그

표 1. 강원도 자연휴양림 일반현황

(단위: ha)				
조성년도	휴양림 명	위 치	면 적	소유구분
88	대관령	강릉 성산 어흘	3,345	국유림
90	청태산	횡성 둔내 삼교	402	국유림
91	미천골	양양 서 황이	12,445	국유림
91	치악산	원주 판부 금대	170	군유림
92	집다리골	춘천 사북 지암	3,000	도유림
92	삼봉	홍천 내 광원	2,140	국유림
92	가리왕산	정선 정선 회동	11,770	국유림
92	둔내	횡성 둔내 삼교	46	사유림
93	가곡	삼척 가곡 풍곡	9,969	국유림
95	용대	인제 북 용대	1,471	국유림
96	가리산	홍천 두촌 천현	300	군유림
96	두릉산	홍천 서 팔봉	53	사유림
97	방태산	인제 기린 방동	9,383	국유림
97	주천강 강변	횡성 둔내 영랑	230	사유림
98	매월대	철원 근남 잠곡	2,960	국유림
00	안인진 임해	강릉 강동 안인진	116	시유림
01	태백 고원	태백 철암	140	국유림
02	횡성	횡성군 갑천 포동리	50	사유림
03	복주산	철원 근남 잠곡리	2,960	국유림

자료: 임업통계연보, 2003.

램으로는 숲해설,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반, 숲과 문화체험, 숲캠프, 암벽등반, 산악스키, 산림생태기행, 숲속 음악회 등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자연휴양림에서는 모두 숲해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연휴양림 중 국유림에서는 대관령 자연휴양림·청태산 자연휴양림, 사유림에서는 둔내 자연휴양림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표 2.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프로그램 현황(2003년)

휴양림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설
가곡	숲해설	배구장,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민속놀이장
가리왕산	숲해설, 산악마라톤대회, 등반대회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숲해설코스, 산책로, 얼음동굴
가리산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산로, 어린이 놀이터, 풋살 경기장, 물놀이터, 산림욕장
대관령	숲해설, 숲 생태기행, 숲과 문화체험 여름 숲 캠프, 1일 숲가꾸기 어린이 겨울 숲교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숲속교실, 야생화단지, 황토초가집, 목공예소
복주산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팔각정자
방태산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체험로, 생태관찰로
미천골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야영장, 등산로, 산책로, 야생화단지, 산림원지
용대	숲해설, 암벽등반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등산로, 물놀이장, 야외교실
삼봉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체험코스 등산로, 물놀이장
청태산	숲해설, 산림생태기행, 산악스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체험코스, 야생화단지, 캠프화이어장, 산림욕장
치악산	치악제, 음악회	숲속의 집, 야영장, 등산로, 산림욕장, 어린이 놀이터, 야생화전시관
집다리골	.	숲속의 집, 야영장, 산책로, 물놀이터, 체력단련장 등산로, 숲해설코스, 산림욕장, 어린이 놀이터
둔내	가을맞이러브미숲속음악회, 산악자전거, 고구마 구워먹기	연못, 통나무집, 야외교실 자연학습장, 자연 관찰원, 야영장,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전망대, 물놀이터, 볼링장, 산림욕장, 산악자전거 코스, 야외무대행사
매월대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수련장, 산책로, 수변데크
두릉산	.	숲속의 집, 야영장, 산림욕장, 체력단련장
주천강 강변	음악회	통나무집, 산책로, 산림욕장, 화훼원, 자연관찰원, 눈썰매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교실, 씨바이벌게임장
안인진	.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산책로, 야영장, 산림욕장
태백고원	숲해설	숲속의 집, 산림 문화 휴양관 등산로, 야영장, 산림욕장
횡성	등반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잣나무숲길, 지압로, 천연눈썰매장

자료 : 각 휴양림 홈페이지,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전화 문의

타났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경우, 다른 자연휴양림과는 다르게 여름과 겨울 모두 숲 교실·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내 숲가꾸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숲에 대한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태산 자연휴양림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산림생태기행을 주관하거나 산악스키교실을 운영하면서 산림청장배 산악스키대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둔내 자연휴양림은 사유림이기 때문에 시설의 꾸준한 증가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히 받아들여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산악 자전거 동호회를 초청하고 대회도 주최하며, 다른 자연휴양림과 같은 숙박시설인 통나무 집도 그 안에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음악회와 콘서트(2003년 가을맞이 러브미 숲속음악회)를 주최하여 이용자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휴양림별 프로그램 시설현황을 보면,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등산로, 야영장, 숲속 수련장 등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가곡 자연휴양림의 민속놀이장,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의 얼음동굴,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풋살 경기장, 대관령 자연휴양림의 황토초가집·목공예소, 미천골 자연휴양림의 선림원지, 둔내 자연휴양림의 눈썰매장·볼링장·산악자전거 코스·야외무대, 주천강강변 자연휴양림의 씨바이벌 게임장, 횡성 자연휴양림의 천연눈썰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강원도 자연휴양림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수기를 제외하고 비수기에 접근성이 낮은 강원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수는 낮기 때문에 주변 대도시의 사람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교통 상의 단점과 계절적 편중 현상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지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머물고 주변의 숲을 산책하는 수준은 휴양림에서 높은 만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없

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이고 독특한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개발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방향 모색

1. 문화 프로그램 개발

전영우(1997)는 “문화는 흔히 우리 삶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산림에 적용하여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산림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무형문화(문학, 예술, 건축, 관광, 미술, 영상, 풍습, 종교)·유형문화(의식주)가 녹아있는 산림을 통하여 문화사업으로서의 가치 창출은 클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 예로 국내에 거제도에 있는 외도의 경우 TV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건축비용 35억 원을 투자하여 1995년 개장 이래, 1997년 한해 75만명이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하루 관광객 최고 300백만명, 한달 수입 2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02). 또한, 남이섬도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장소로 소개되어 일본인들에게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본 방송사에서 특집프로그램으로 남이섬을 취재하기도 하였다. 다른 사례로는 국내에서도 백만부 이상 팔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소설책으로 아무 볼거리도 없던 나무다리 하나가 소설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한가하던 시골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강원도의 자연휴양림의 현 상황을 볼 때 위와 같은 영상매체와 문화의 결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강원도 자연휴양림 내 조성되어 있는 세부시설이 대부분 현대 건축물과 여관식 구조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우리의 전통이 가득 베어있는 전통가옥으로 설립한다면 휴양과 문화가 결합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전기온돌이 아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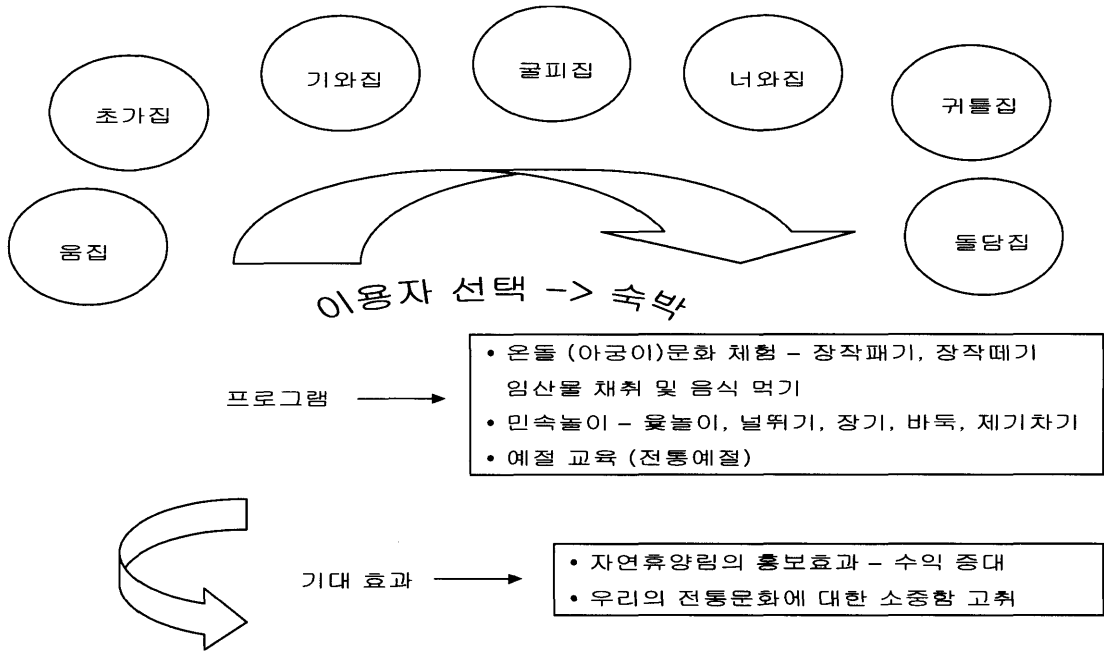


그림 2. 「전통가옥 체험」 문화 프로그램

궁이에 직접 나무를 때면서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붉은 벽돌의 벽돌집과 가공된 외래 수입목으로 지어진 통나무 집이 아닌 옛 조상들이 살던 초가집이나 기와집, 그리고 강원도 화전민들이 살았던 지붕을 나무껍질로 이어 만든 굴피집, 개마고원 같이 산림이 우거진 곳에 지어진 귀틀집, 제주도의 돌담집 등을 이색적으로 만든다면 자연휴양림의 외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이다 (그림 2).

이외에도 별을 볼 수 있는 집, 계곡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 등의 테마 가옥을 짓거나 벽돌 집, 나무집, 진흙집, 볏짚을 이용한 집 등의 지형을 이용한 가옥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영상매체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숲속의 음악회', '숲속의 미술관', '시낭송대회' 등의 음악·미술·문학의 예술분야를 산림휴양과 결합시키는 것도 좋은 예일 것이다. 이처럼 산림을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은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다른 문화 프로그램의 예로, 「오지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인간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환경 속에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강원도의 오지 속에서 스스로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

이 「오지 체험」 프로그램은 도심 속에서 스스로의 자립심과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동심,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행 방법을 설명하면 체험자들이 2~3명으로 조를 나누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제공하고 산림에서 모든 것을 얻어 생활하게 하고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가 임산물을 채취하여 먹고, 텐트를 칠 때에도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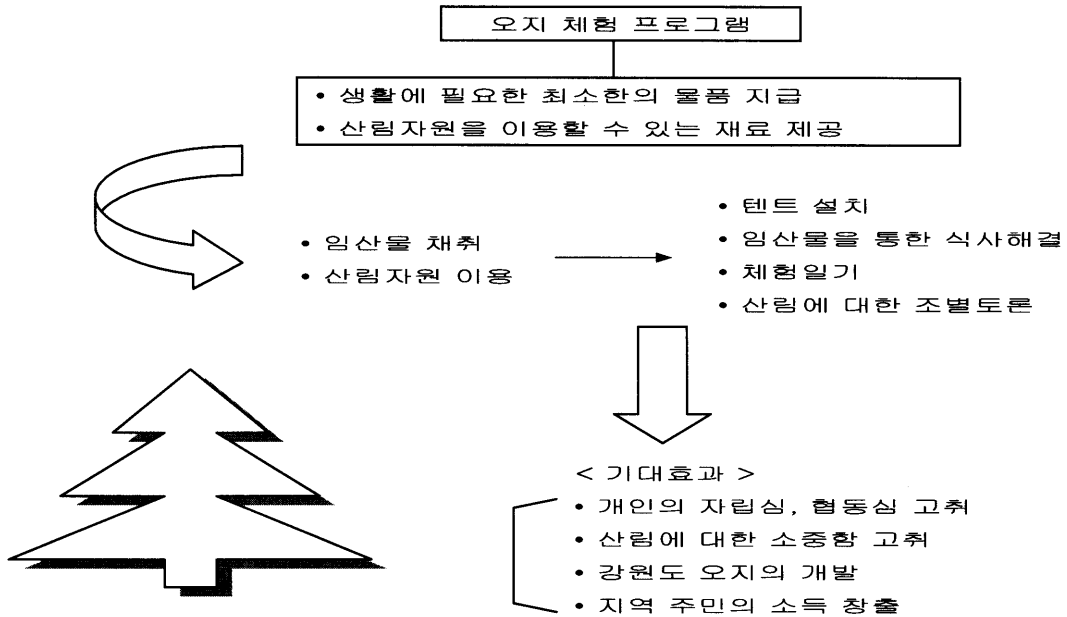


그림 3. 「오지 체험」 문화 프로그램

여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루가 지날 때 마다 체험일기를 써서 인간·삶·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서 체험 후에는 조별 토론을 통해 산림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의 운영은 지역 주민, 특히 산촌마을의 주민들이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촌마을 주민과의 연

자연 휴양림 (장소제공) ↔ 산촌 마을 (산촌 특산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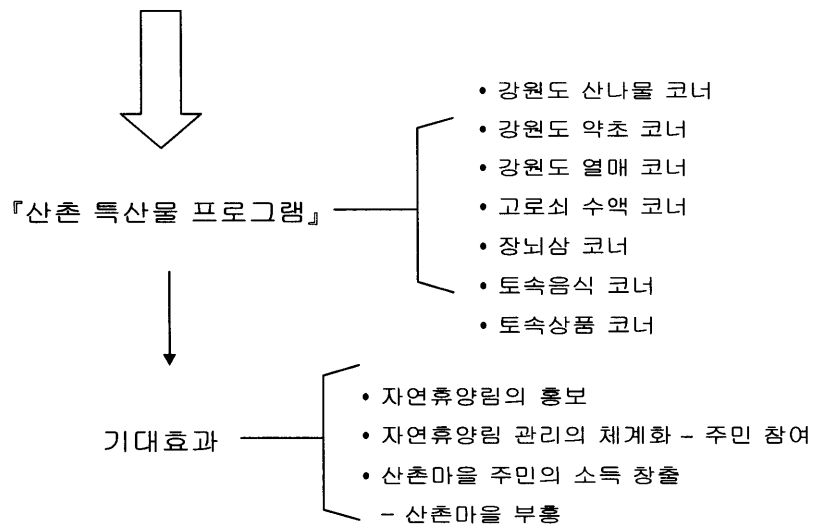


그림 4. 「산촌 특산물」 문화 프로그램

계를 통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촌 특산물 프로그램」을 강원도 자연휴양림 내에 유치한다면 휴양림의 홍보효과와 강원도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촌 특산물 프로그램」은 산촌에서 직접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 상품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강원도 산나물 코너', '강원도 약초 코너', '강원도 열매 코너'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분류되어진 코너에서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맛을 볼 수 있는 시식코너와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고 산촌에서 먹는 토속음식과 토속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민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산촌 특산물이 유통과 홍보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축제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그림 4).

강원도 자연휴양림에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가족간의 행복과 유대를 증진 시킬 수 있고 사회에서의 친목, 협력의 증진을 통해 국가의 복지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강원도 산림에 문화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복합된 '산림문화'를 형성하여 특색 있는 강원도 자연 휴양림을 설립

하는데 공헌을 할 것이며 방송과 언론매체, 각종 행사와의 연계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원도의 자연휴양림이 홍보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 프로그램 개발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직·간접적인 효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Well-Being)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질적인 삶을 요구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자연휴양림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또한, 강원도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되는 숲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자연휴양림의 인식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예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휴양림 내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 프로그램은 쾌적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도심 속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옛 것에 대한 향수에 젖게 하고 노인들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5). 이 프로그램은 자연휴양림에 휴식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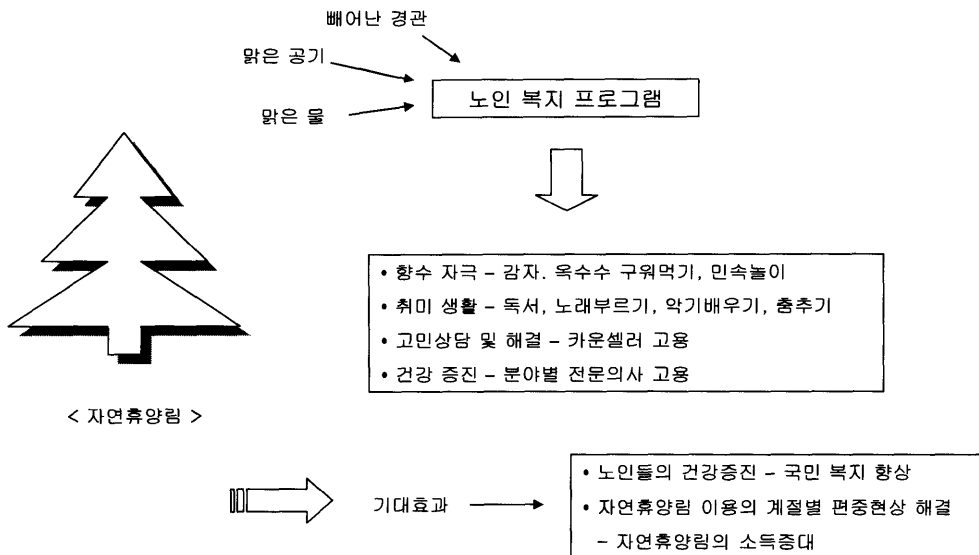


그림 5. 「노인 복지 프로그램」

조성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노인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카운셀러와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사들도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숲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신적·육체적으로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장애가 숲으로의 접근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혜택을 누릴 때 부담하는 최소의 경비도 그들에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에서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 예로, 일본의 자연휴양림 중에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 등산로 전체를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좋은 사례이다(신원섭, 2003).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과 함

께 생활하면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숲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전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반인들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사회성 증가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그림 6).

따라서 자연휴양림 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를 위한 장애인 등산로와 산책로를 신설하고 정신적·육체적 장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과의 활발한 공동체 경험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대화와 교류도 하고 놀이도 즐기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불평등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는 도심 속에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연휴양림에서 만족할 만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삼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문제를 자연휴양림에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면 자연휴양림이 사회적으로 크게 각광받는 복지사업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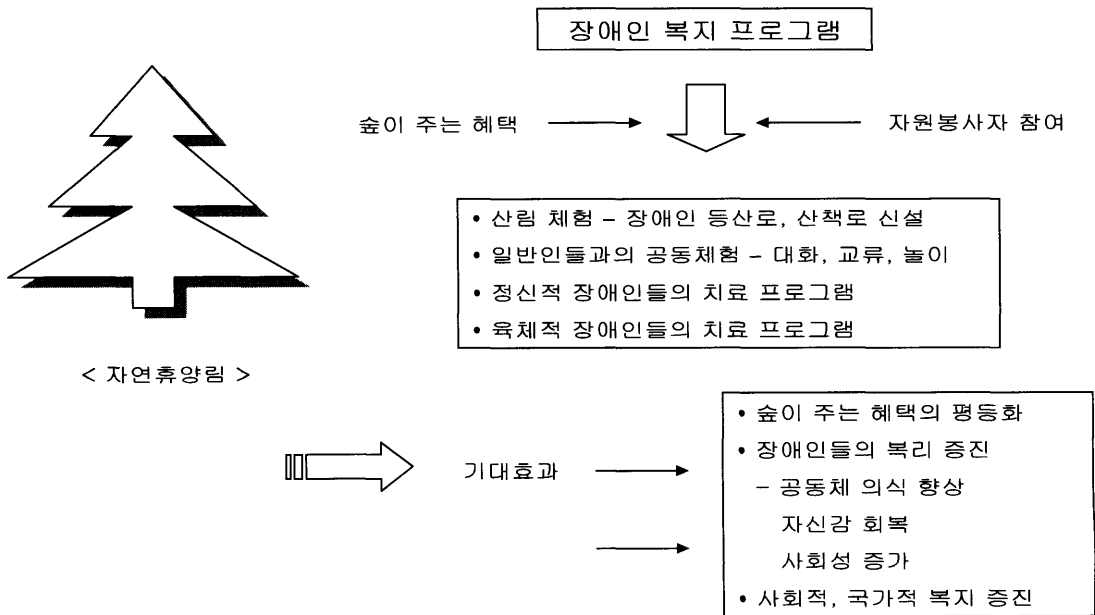


그림 6.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식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강원도 자연휴양림에 도입한다면 자연휴양림의 기능이 더욱 증진될 것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공간으로 자리 잡아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원도 자연휴양림에서 자체 내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숲체험교실, 숲해설 프로그램, 숲체험코스 등을 개발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산림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산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더 가치 있는 복합적인 산림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내적으로는 수준 높은 숲

해설가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의 이미지는 획일화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연하여 현재의 교육은 보다 질적인 교육을 원하고 자연교육을 통한 인성·감성의 순환에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 내의 교육 프로그램은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적용하여 인성개발에 초점을 맞춘 '산림 교육 공간'으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이미 조성된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제적인 산림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현재 강원도 자연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휴양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산림에 각 나라의 교육과 문화의 개념을 도입한 「숲 속의 지구촌 교류」 조성은 앞으로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방향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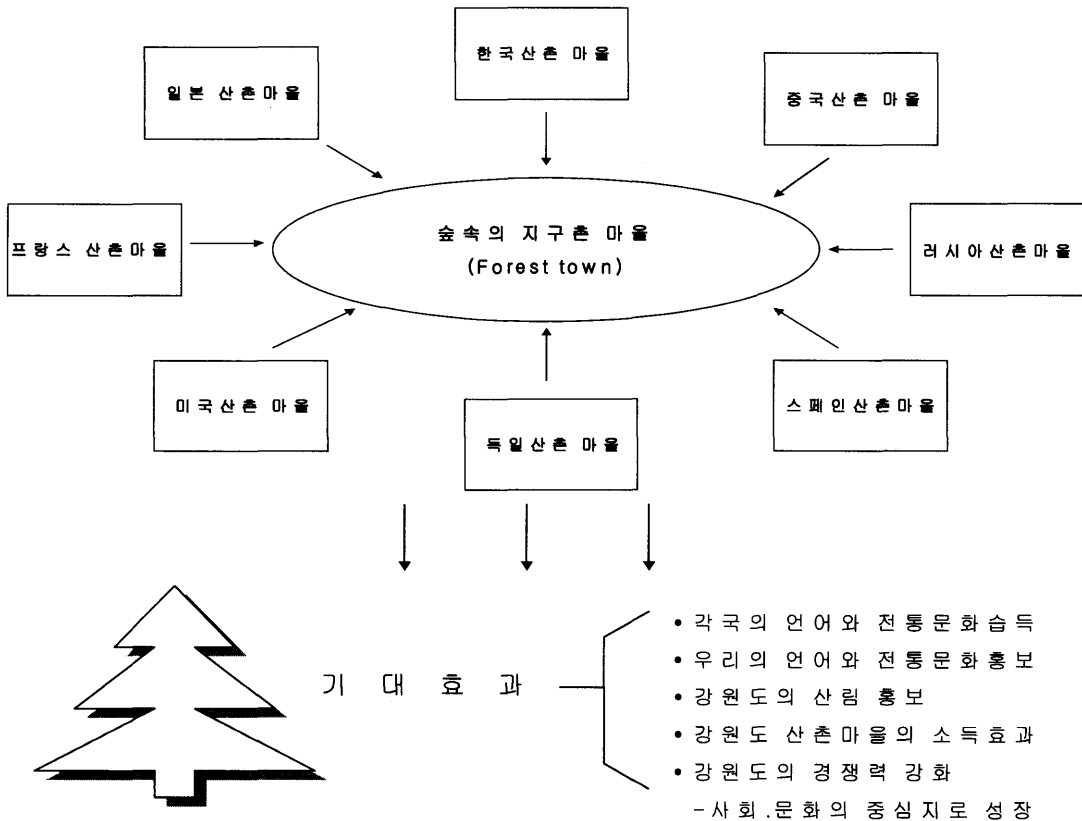


그림 7. 「숲 속의 지구촌 교류」 교육 프로그램

「숲속의 지구촌 교류」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한곳에 집중시켜 세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언어·문화·산림을 각국의 청소년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숲 속의 지구촌 교류」내에 각 자치마을을 두어 '한국 산촌마을, 일본 산촌마을, 중국 산촌마을, 미국 산촌마을, 러시아 산촌마을, 독일 산촌마을, 스페인 산촌마을, 프랑스 산촌마을' 등으로 구성하고 마을 구성 시 모든 것은 각 마을마다 그 나라에 맞는 특색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각 마을마다 이름을 지정하고 자치체 형식으로 운영하며 의식주의 모든 것을 각국의 전통문화로 해결하며 체험기간 동안 교육, 식사, 운동, 게임 등의 모든 프로그램을 각 마을간에 활발한 교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체험과 프로그램이 끝이 난 후에는 각 마을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의 제공도 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산림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문화·산림이 전세계의 청소년들을 완전히 포용하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교육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보내는 몇 주간의 시간은 그들의 미래와 강원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산촌마을의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산촌마을이 전 세계에 홍보될 수 있을 것이며, 강원도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림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자연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그림 8).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시 속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감정이 점점 메마르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회단체들과 정부에서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성프로그램에 자연휴양림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접목 시킨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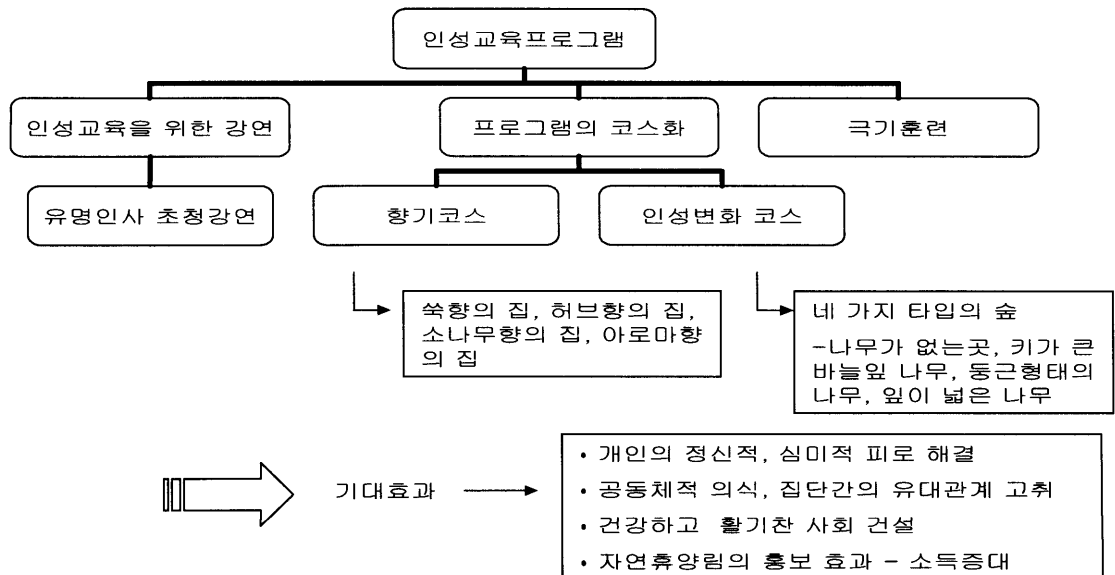


그림 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시행방법은 자연휴양림 내에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인성교육 강연을 주관하고, 사회단체들의 공동체적 의식과 집단간의 유대관계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극기훈련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에 숲의 모양을 네가지 타입으로 조성하거나 향기코스를 마련하여 시각적·후각적인 감정변화를 통해 감정이나 감각에 매달려 있는 구성원들에게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산림 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산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창의력 및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어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것이다. 또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강원도의 산림 휴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지금까지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아 강원도 자연휴양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강원도 자연휴양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 휴양림의 시설 및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정신적·심미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한다는 의식 및 자연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각각 나타나는 것보다 산림과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또한, 강원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증가는 앞으로도 계

속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복지·교육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휴양림은 사업이 단기간 내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을 지닌 공익적인 공공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강원도는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연휴양림 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산림의 대부분이 국유림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 제도적인 문제해결, 산림 휴양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 증가 등은 강원도 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강원도는 각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산림 문화 및 휴양 공간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수익 창출과 강원도의 경제발전에도 역량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문헌

1. 강원사회 연구회. 1998. 강원환경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pp322.
2. 산림청. 2003. 임업정책. 기획예산 담당관실. 58~60.
3. 산림청. 2003.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pp411.
4. 산림청. 2002. 산림청 통계자료실(<http://www.foa.go.kr>).
5. 신원섭. 1999. 야외 휴양 관리. 3~72.
6. 신원섭. 2003. 숲의 사회학. 도서출판 따님. 48~88.
7. 이천용. 1999. 휴양 임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숲과 문화. 8(3): 20~21.
8. 임업연구원. 2003.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임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임업연구원. pp70.
9. 전영우. 2000. 산림 문화의 구축방안. 숲과 문화. 9(1): 24~28.
10. 한국일보. 2002년 11월 4일. 「지평선 의도」. 김수종 논설위원.